

제25회 생글논술경시대회

고2 인문 유형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할 것.
2. 답안 분량은 띄어쓰기 포함한 글자 수임.
3. 답안 작성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또는 청색 펜이나 연필 가운데 통일된 한 종류의 필기구만 사용함.
4. 답안이나 답안지의 여백에 답안 이외에 불필요한 낙서나 이와 유사한 표현, 표시를 한 경우 0점 처리함.
5. 1인당 1장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할 것.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라.

(가)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추구되는 것보다 완전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될 뿐 결코 다른 것 때문에 선택되지 않는 것이 완전하다. 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렇게 완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복을 언제나 그 자체 때문에 선택하지 다른 무엇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다. 인간의 기능을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좋음은 훌륭함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고, 그 활동 자체가 곧 행복이다.

행복은 훌륭함에 따른 인간 영혼의 활동이므로 인간의 행위로 성취되거나 소유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나 말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동물은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 또한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린이가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희망을 말한 것일 뿐이다.

운에 따라 인간의 행복 여부를 판단해도 좋을까? 인간이 운에 의해 잘되고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운이 인간적 삶에 더해질 뿐이다.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이 행복이고, 그 반대의 활동은 분명 불행을 불러온다. 그러나 추가되면 좋을 것이 추가되지 않는다 하여 행복이 흔들리지는 않는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들 중 훌륭함에 따르는 활동만큼 안정성을 갖는 것은 없다. 그 활동은 학문적 인식보다 더 지속적인 것으로 보인다. 지극히 복된 사람들은 그 활동을 누리며 가장 연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간다.

인간의 삶에서 훌륭함을 따라가는 영혼의 활동이 결정적인 것이라면, 지극히 복된 사람들 중 누구도 비참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모든 운을 품위 있게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한 가장 훌륭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훌륭한 장군이 주어진 부대를 전략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꾸려가고, 좋은 제화공이 자기가 가진 가죽으로 가장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결코 비참하게 되지는 않는다. 행복한 사람은 실로 쉽게 변하지 않는다. 운수는 이리저리 몰아치며 변화무쌍한 얼굴을 드러내지만, 완전한 훌륭함에 따라 활동하는 사람은 늘 그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이 특정한 기간만이 아니라 그의 온 생애에 걸쳐 행복하다.

(나)

옛날 어느 나라에 바위를 쪼아 무엇을 만드는 석수장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자기의 생활에 불만이였다.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태어났나?” 이러면서 어느 날도 산 중턱에서 바위를 쪼고 있는데 그 아래 길로 임금님 행차가 지나가게 되었다. 임금님 행차라는 소리에 밀을 내려다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있고 문무대신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고 악대가 선두주자로 나가며 요란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저 임금이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하늘에서 “너는 임금이 되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는 갑자기 임금이 되었다. 임금이 되고 보니까 부러울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발밑에 있었다.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었다. 머리 위의 태양은 그에게 절하지도 않고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뜨거운 빛을 뿜고 있었다. 그는 욕심이 나서 다시 “내가 저 태양이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는 순간에 또 하늘에서 “너는 태양이 되어라.”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태양이 되었다. 태양이 되니까 임금이 부럽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태양을 가려버렸다. 그는 얼른 “내가 저 구름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여 또 구름이 되었다. 구름이 되니까 천하의 태양을 가릴 수 있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강풍이 몰아치면서 바람에 구름이 밀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저 바람이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하여 그는 다시 바람이 되었다. 바람이 되니까 태양을 이기는 구름까지 몰아내고 모든 천지에 있는 것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바람에도 밀려나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산 중턱의 큰 바위였다. “야, 저 바위가 나보다 더 세구나, 내가 바위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또 갑자기 바위가 되었다. 천하의 바람을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석수장자들이 와서 그 바위를 쪼기 시작했다. 그는 몹시 아파서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들이라면 좋을 텐데.” 그리고서 정신이 나서 보니까 도루 석수장이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다)

경제학은 자기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갖고, 주어진 조건 아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합리적 인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합리적 인간은 소비자로서 제한된 소득을 지출하여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계산하고 선택한다. 이러한 합리적 인간을 창조한 인물은 공리주의 철학의 원조 제레미 벤담이다. 그에 의하면, 삶의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얻는 데 있다. 여기서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이다. 사회의 행복은 개인의 행복을 합친 것이며 입법의 목적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가 제시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표현은 이를 집약한 것이다. 따라서 벤담이 창안한 합리적 인간은 오직 두 가지 사실만 고려한다. 하나는 쾌락(행복, 즐거움, 만족 또는 효용)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불행, 괴로움, 고생 또는 비효용)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성’ 개념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 스스로 잘 아는 개인이 자기가 가진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리는 선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라)

‘소확행’과 ‘올로’(Yolo)란 단어가 요즘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단어라고 한다. 소확행은 일본의 저명한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즐거움을 뜻하는 단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즉 소확행이란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이란 뜻이다. 덴마크의 ‘휘게’나 스웨덴의 ‘라곰’이라는 정서와 닿는 신조어다. 올로는 ‘인생은 한 번뿐’(You Only Live Once)이라는 문장의 단축어다. 거창하고 화려하고 오랜 기간 준비해야 하는 커다란 이상을 추구하느라 모든 것을 유예하는 삶이 아니라 일상과 주변에서 당장 누릴 수 있는 행복과 작은 기쁨의 가치를 일깨우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추세는 의식주 같은 생활의 기본조건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사람들은 삶에서 만족 즉 행복을 추구하게 된다고 한 조사연구 결과와 상응한다. 그러나 격차 확대라는 사회문제도 반영돼 있다. 멋진 승용차나 대도시의 번듯한 아파트를 꿈꾸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행위가 결실로 이어지기보다 영원히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대상으로 멀어져가는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를 수 없어 보이는 목표 대신 작지만 확실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를 250자로 요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나)의 ‘석수장이’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30점, 450-550자)

문제 2. 제시문 (다)를 이용하여 제시문 (라)의 현상을 분석하시오. (30점, 450-550자)

문제 3. 모든 제시문을 참고하여 ‘행복과 소비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40점, 700-800자)